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한반도 돼지고기의 서사

설과 함께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가 본격적으로 밝았다. 12지신 중에서 인간이 식용으로 기르는 동물은 소, 양, 말, 닭, 돼지 정도다.

이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은 돼지고기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두드러진다. 2017년 기준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4.5kg으로 닭고기 13.6kg, 쇠고기 11.5kg과 비교해 단연 압도적이다.

작년 한 해에만 1735만 마리의 돼지가 식용으로 도축됐다. 동네마다 치킨집이 수도무더하고 '1인 1닭' 시대가 도래했지만 소비량에서는 여전히 돼지고기가 앞서고 있다.

돼지는 신석기 시대부터 가축으로 길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이 가축으로 길러졌던 동물은 살아서 분명한 역할이 있었다. 농경 사회에서 소는 핵심적인 농기구였다. 밭과 논을 갈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데 인간보다 나은 노동력을 제공했다. 개는 인간의 벗이 되어 주었고 가축을 치거나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했다. 하다못해 닭도 땅속에 있는 유해한 벌레를 잡아먹으며 요긴한 알을 낳아 주었다.

그런데 돼지는 땅을 갈지도, 가축을 보호하지도, 알을 낳지도 않았다. 오로지

먹기만 했다. 심지어 잡식성이었던 돼지는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지도 않았다. 인간이 먹기 위해 애써 재배한 작물을 남겼다. 하는 수 없이 우리에게 가뭄 인간이 먹을, 혹은 인간이 먹던 것을 나눠 먹었다. 돼지의 서사에서 첫 번째 의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굳이 이렇게까지 키웠던 것은 돼지는 죽어서 존재감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에게 올리는 제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민원을 접수하는 행위다. 부락을 하는데 맨입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 제물이 필요했다. 생명이 있는 것을 바칠수록 인간의 절실한 의지가 전달된다고 믿었다. 그렇다고 살아서 역할이 분명한 가축을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화를 면하고 복을 부르는 제물로서 돼지만큼 적합한 동물도 없었다.

신에게 올리는 제사가 끝나면 인간의 축제가 시작됐다. 돼지의 두 번째이자 결정적인 존재감은 이때 두각을 나타낸다. 신에게 제물로 돼지가 바쳐지는 날은 곧 인간이 고기를 먹는 날이다. 낱은 의미의 '고기'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신체 조직 전부를 의미한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신체의 일부를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근조직인 좁은 의미의 고기와 간·콩

팍·장자 등의 내장 기관으로 구분한다.

이때 고기는 근육, 다시 말해 동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추진 장치다. 추진 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동물과 식물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인데 지방은 같은 무게의 탄수화물에 비해 2배나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에너지의 밀도가 높다는 의미다. 그래서 움직임이 많은 동물은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래서 가축을 도축해서 고기를 얻는다 함은 추진 장치인 근육과 에너지원인 지방만 분리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재래종 돼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인간이 먹을 것을 나누며 애써 키워 봐야 60kg이 넘지 않았다. 여기서 얻어지는 고기는 겨우 30kg 남짓. 축제를 즐기고 배불리 먹기에 충분치 않은 양이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필요했다. 머리·배·내장 등을 모두 넣어 끓여서 국물을 얻고, 밥이나 면을 말고, 고기 몇 점을 올렸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축제다운, 잔치다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돼지국밥의 탄생이다.

공동체 중심의 농경 사회에서는 이 정도로 충분했다. 하지만 산업화가 도래하

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공리주의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대량 사육의 핵심은 속도와 효율성. 버크셔, 랜드레이스, 듀록이라는 외래 품종을 섞어 삼원교잡종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다. 재래종과 비교해 이 새로운 품종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다. 한 번에 새끼를 14~17마리까지 낳았다.

태어날 때 1.5kg이었던 것이 사료만 잘 먹이면 6개월 만에 115~120kg까지 성장했다. 심지어 지방도 적어 훨씬 더 많은 비율의 고기를 얻을 수 있었다. 덕분에 우리는 축제나 경조사가 아니라도 고기 맛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거리마다 삼겹살집이 넘치고, 가장 서민적인 음식점인 기사 식당의 대표 메뉴가 돼지불백이 되었고, 휴가철이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돼지고기 굽는 연기를 피울 수 있게 되었다.

황금돼지해인 올해는 돼지고기의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 도축은 1770만 마리, 생산량은 95만2000t으로 2018년에 비해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년을 맞아 올 한 해 도축될 모든 돼지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바이다. 지난 수 천 년 동안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맛 칼럼니스트>

특별기고

글로벌 에너지 공대를 위한 첫걸음



버크하르트 라우호프 독일 아헨공대 총장

작년 11월 21일 독일 아헨에서 머물고 있던 나는 한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전공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AT 케니 컨설팅사 대표였다. 그는 한전공대 입지 선정 공동위원장을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는데, 이미 2017년 빅스포(BIXPO) 한전공대 포럼, 2018년 한전공대 국제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져온 터였기에 나의 대답은 흔쾌히 'YES'였다. 2017년 빅스포 포럼을 가두 메온 인파를 보며 학교 설립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적지 않게 놀랐었다. 다소 아어했지만 총

장으로 재직했던 아헨공대를 떠올려보니 이내 이러한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헨은 인구 30만의 중소 도시인데, 아헨공대가 지난 20년간 3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 한전공대 설립도 그 시작부터 이미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이슈였던 것이다. 그렇게 입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실감했다.

입지 선정은 전남과 광주가 각 세 곳의 후보지를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준위원회가 심사 기준을 수립했는데, 1단계에서 지자체별 후보지를 각 1곳으로 압축하고 2단계에서 최종 1곳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고, 둘째 날은 심사위원들이 직접 6곳의 입지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에는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평가 결과는 집계하지 않은 채 위원들의 입

회 하에 위원장이 직접 봉인했다. 그렇게 전달된 결과가 지난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입회 하에 최종 확정되어 발표된 것이다.

다시 돌아봐도, 입지 선정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구성위원회가 지역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위원들로 기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심사위원회에 교육과 연구, 도시계획, 경제 등 다양한 배경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점, 마지막으로 위원들이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채 심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전공대 입지 선정 절차는 한 전 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해도 될 정도의 공정함과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자신한다.

한전공대는 이제 막 대학이 들어설 입지를 결정하는 첫 걸음을 디뎠을 뿐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수도룩하다. 세계적 석학을 총장으로 모셔 와야 하고, 캠퍼스도 설계해야 하고, 어느

학과를 만들지도 고민해야 하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신생 대학인 한전공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마케팅 전략도 수립해야 하고, 글로벌한 한전공대를 만들어갈 역량 있는 교직원도 채용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제 기후 변화, 자원 고갈 같은 에너지 문제는 인류에게 가장 큰 이슈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사람들(미래의 교직원, 학생, 중앙 및 지역정부, 그리고 한전까지) 모두가 한전공대가 성공적으로 설립되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간다는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의료칼럼

일상이 되어 버린 미세먼지



강석준 보리안과병원장

날씨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안데스 고원의 은화한 날씨와 풍부한 강수량,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비옥한 땅 덕분에 콜롬비아는 커피 산업이 발달했다. 공기가 맑고 먼지가 적은 스위스의 산골짜기에서는 시계 공업이 발달했다. 우리 일상생활에 날씨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비가 오면 야외 일정은 취소가 되고, 안개가 자욱한 날은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다. 햇빛 좋은 날은 나들이객들로 유원지가 붐빈다.

요즘 날씨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기온, 강수량, 풍량, 풍속 등의 기본 정보 외에 또 언급이 되는 정보가 있는데, 바로 미세먼지 예보다. 몇 년 전만해도 3~5월에 한반도를 습격하는 황사가 가장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중국발 황사와 더불어 미세먼지가 상공을 덮고 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지름 10㎍ 이하이다.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미세먼지 농도를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관측해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 농도를 1세제곱미터에 몇 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밀 장비로 측정하고 결과를 매일 발표하고 있다. 이제는 강수량, 기온 외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외출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참고로 필자가 글을 쓰는 오늘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112㎍/㎥로 '나쁨' 수준이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폐포까지 침투해 염증, 가려움증, 눈질환, 비염, 후두염, 천식, 폐질환, 아토피 등 피부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 크고 작은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가급적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외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호흡기가 약한 노인, 어린이, 임산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특히 외출을 삼가야 한다.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외출 전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서

는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창문을 닫고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해야 한다. 또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등을 사용해 습도를 유지하고 공기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오히려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외출 후에는 곧바로 샤워하고 양치질을 해서 입안을 깨끗이 행궤줘야 한다. 물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 호흡기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목을 잠가게 하고 심하면 염증까지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 시 자연 환기는 자제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하루 세 번 이상, 될 수 있는 대로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규칙적인 자연 환기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특히 안과 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미세한 입자와 건조한 공기가 자극성 결막염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막염은 눈의 이물감과 충혈, 따가움,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이때 눈을 비비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고 증세가 심할 경우 흰 자위가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보호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좋다. 또 먼지 때문에 눈을 자주 비비게 되는데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하며, 가능한면 눈도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예방 차원에서 안약을 미리 넣는 다거나 외출 후 소금물로 눈을 씻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전문의의 처방 없이 안약을 함부로 점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소금물 또한 눈에 좋지 않다. 평소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인공 눈물 안약을 더 자주 점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전에는 황사가 불어오는 3~4월만 잘 버티고 지나가면 됐는데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일년 내내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으니, 날이 좋다한들 날이 한번 편히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일기 예보에서 미세먼지 지수를 안 봐도 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 오늘 퇴근길도 마스크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길을 나선다.

社說

‘민생 챙겨 달라’ 설 민심에 정치권 화답해야

나흘간의 설 연휴가 끝났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던 이들도 이제 다시 샅터로 향한다. 모두들 수구초심(首丘初心)으로 고향을 찾아 생활의 활력을 얻고 돌아갈 것이다.

올 명절도 한자리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답답한 정치와 팍팍한 경제를 화제에 올렸다. 이들은 제수용품을 마련하면서 지난해보다 상승한 물가를 실감했다.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사과와 배(10개 단위) 소비자 판매 가격이 지난해 2만 원,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 4만 원으로 각각 뛰었다. 물 오징어(중품 1마리)와 건오징어(중품 10마리)도 4000원과 3만5000원에서 4500원, 4만4000원으로 올랐다. 지역민들은 생활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에서 자녀 교육과 고용, 취업 등 여러 문제로 힘겹기만 하다.

설 연휴 동안 지역을 찾은 국회의원들

역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장 많이 접했을 것이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 의원은 “재래시장을 가보면 평소보다 사람이 적고 썰렁했다. 상인들에게 인사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명절에는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입지를 최종 선정한 ‘한전공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두 사업은 이제 첫 단추를 꿴 것을 뿐이다.

정치권에 바라는 지역의 설 민심은 민생과 지역 발전을 잘 챙겨 달라는 주문이다. 고향을 찾았다가 샅터로 다시 돌아가는 이나 지역을 지키는 가족 모두 바라는 것은 근심 없이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이다. 여야 정치권은 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목소리만 앞세우는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부터 먼저 챙겨야 할 것이다.

선거제 개혁 2월 국회에선 반드시 마무리

여야 5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내 합의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여전히 표류가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무관심과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탓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에 서로도 선거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어찌까지도 2월 전체회의의 일정은 물론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소(小)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 조사와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도 의원 정수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 수 300명 유지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최소 33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현행 선거 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아 거대 당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사표(死票)가 너무 많이 발생하며 민의가 왜곡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5년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내년 4월 실시될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4월 15일이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3월 1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이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여야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발씩 양보해 하루빨리 개혁안을 마련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문화회관장 인선 소식을 듣고 자괴감이 들었다. “내가 이럴려고 그렇게 기사를 써왔나” 하는 허탈감도 밀려왔다. 지역 예술인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설마 설마 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 최근 문화 단체 관련 인선을 지켜본 지역 예술인들 가운데 이제 “광주시 문화 정책에 기대할 게 없다”는 탄식도 나왔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문화회관장은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인문과 문화계, 의회 등에서는 경쟁력을 위해 솔하게 개방형관장제 도입을 요구하는 기사를 쓰기도 토론회를 열었고 ‘마침내’ 28년만에

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게 ‘코드 인사’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코드 인사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철학을 같이 하는 이들을 ‘제대로 된 자리’에 임명한다면 효율적인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이뤄지고 있는 광주시 인사는 전문성, 능력과는 동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내정설이 둔성 광장 선임은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포럼 회장 등 문화계에서 지탄받아온 문제적 인사의 ‘정점’을 찍은 듯하다.

시의 문화계 보은 인사

민간인 광장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연 예술계를 잘 아는 전문가’가 발탁돼 지역 최고의 공연예술기공의 위상을 만들어가길 바랐던 바람은 배그르대고 있다. 이번엔 선임된 성현출 관장은 문화예술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용섭 시장의 선거를 도운 정치인에 가까운 인물이다. 문화 관련 이력으로 내세운 지역 문화위원장도 ‘향토문화 계승’을 주 사업으로 하는 단체다. 326억원의 예산에 8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며 ‘지역 공연예술 저변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책임지’는 관

장 등 문화계에서 지탄받아온 문제적 인사의 ‘정점’을 찍은 듯하다. 최근 이 시장은 ‘민선 7기 광주시 문화 정책’을 발표하며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시의 정책은 현상 활동가들이 함께 뛰지 않으면 구현될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자인 인사”를 반복하며 예술인들의 사기를 꺾어 버리고, ‘시장에게 줄서야겠다’는 자조적 목소리도 나오는 요즘의 광주 문화계의 정서를 어떻게든 읽지 못한다면 문화부시장 제도는 이제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김미은 편집부장·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